

# e-비즈니스 기술 정책의 추세와 문제점\*

The Trend and Problems of Korean e-Business Technology Policy

박경혜\*\*

## 목 차

I. 서론	1. 차세대 e-비즈니스의 전개
II. e-비즈니스 기술 분류	2. IT 기술의 발전 동향 및 개발 정책
1. e-비즈니스 기술 분류 체계	3. e-비즈니스 기술 활용 정책
2. e-비즈니스 기술 계층	IV. e-비즈니스 기술 정책 개선을 위한 제언
III. e-비즈니스 기술 정책 현황과 문제점	참고문헌

Key Words : e-비즈니스, 기술정책, 정책 로드맵, IT 839

## Abstract

There are many challenges to solve on how we will use IT infrastructures accepted as the best worldwide level for strength of country's competitiveness. Over the past years, IT environment has been formed to expand the basis of e-Business by policy, but little contributed to management efficiency such as improvement of business productivity through utilization of it. This paper explores the category of the related technology policies by classifying e-Business technologies and presents the problems and developmental directions for those policies by investigating the trends of the policies which have been framed so far. Especially, this article also examin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echnology policy on the road map of 2010 e-Business policy and the IT839 strategy.

\* 이 논문은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대학 IT연구센터 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kpark@cnu.ac.kr, (042)821-5578

# I. 서론

우리 정부는 2000년 2월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 과 2001년 4월 및 2002년 6월에 'e-비즈니스 확산 국가전략' 으로 이어지는 중장기적인 e-비즈니스 추진 정책을 마련하고, 이들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종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전자상거래 규모가 2000년 58조원에서 2003년 235조원으로 크게 확대되었고,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전자거래 비율도 2000년 4.5%에서 2003년 16.5%로 증가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어왔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e-비즈니스 수준에 대해 만족하기는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의 IT인프라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으나, 이를 산업에서 활용하는 e-비즈니스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04년 4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지와 IBM이 공동조사한 e-비즈니스 준비도(e-Business Readiness)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60개 국가중 14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2003년에 비해서 다시 두 단계 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WEF(World Economy Forum)이 나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등이 발표하는 각종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기업 경영효율, 경제 정책 등이 각 부문에서 뚜렷한 향상을 보이지 못하고 부문에 따라서는 퇴보하는 듯한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디지털 경제로 대변되는 경제?산업 구조의 e-비즈니스화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본다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정보통신 인프라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떻게 접목해 나갈 것인가

가 향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IT의 발전 및 정보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로 디지털 네트워크화가 진전되면서 IT의 활용이 경제성장과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새로운 경쟁 환경에서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산업 기반에 세계 최고 수준의 IT화 능력을 접목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e-비즈니스를 새로운 가치창출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매김시키고, IT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과 기존 산업의 e-비즈니스화를 촉진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비즈니스 정책은 법제도의 개선, 운용기반의 확충, 국제협력 강화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추진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그 중에서도 e-비즈니스 기술 정책에 한정하여 그 현황 및 추세와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e-비즈니스 기술의 분류 체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기술 정책의 범주를 논하고 e-비즈니스 기술 정책의 현황과 로드맵을 검토해보고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의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 II. e-비즈니스 기술 분류

### 1. e-비즈니스 기술 분류 체계

e-비즈니스 기술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e-비즈니스 기술의 체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

다. e-비즈니스 기술 체계에 대한 주요 연구로는 이비즈그룹의 e-비즈니스 기술 로드맵, 전자상거래 표준화통합포럼(ECIF)의 전자상거래표준화 로드맵, 전자상거래연구소의 e-비즈니스 지식분류 체계 수립 연구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 활용한 e-비즈니스 기술에 대한 지식분류체계는 수직적으로 기존의 기술계층관점을 수용하되 수평적으로 e-비즈니스 가치사슬과 프로세스 관점을 포함하여 통합된 체계를 제시한 e-비즈니스 기술 로드맵(2003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체계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였다.

먼저 수평적으로 보면 e-비즈니스 및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거래 프로세스 별로 기술분류를 할 수 있는데 정보수집 단계 (Information), 거래 단계 (Transaction), 거래이행 단계 (Fulfillment), 사후서비스 단계 (Service & Support) 등 4단계로 분류하였다. 협업과 경영지원 기술은 전체 e-비즈니스 프로세스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별도 항목으로 포함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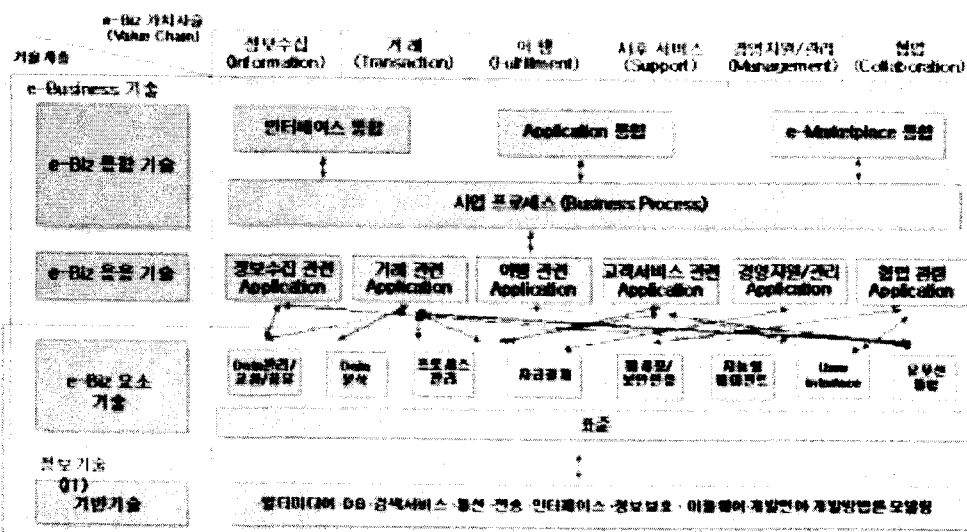
수직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e-비즈니스 응용기술

계층과 e-비즈니스 요소기술 계층, 그리고 IT 인프라 기술 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러한 기술계층구조는 그 동안 연구된 기술분류체계들과 유사하나 다만 최근 통합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는 추세를 감안하여 프로세스별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합하는 통합기술 계층을 별도로 구분하고 IT 인프라 기술은 이 지식체계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하였다.

e-비즈니스 응용기술 계층과 요소기술 계층은 가치사슬 각 단계별로 요소기술을 분류하고 통합기술 계층은 프로세스 통합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기 인터페이스 통합기술, 프로세스 및 시스템 통합기술, e-Marketplace 통합기술로 구분하였다.

전자상거래연구소의 e-비즈니스 지식분류체계 연구에서는 e-비즈니스 요소 기술 계층에 대해 세부기술요소를 자세히 기술하였으며 통합기술과 응용기술 계층에 대해서는 관련 세부기술요소가 다른 분야에서 다루는 요소와 대부분 중복되므로 중복분류까지만 기술하였다. 이 분류는 앞장의 표와 같이 하위분류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1> e-비즈니스 기술 분류체계 개념도



## 2. e-비즈니스 기술 계층

e-비즈니스 기술에 대한 지식체계분류는 크게 e-비즈니스 통합기술, e-비즈니스 응용기술, e-비즈니스 요소기술 및 IT기반기술로 나뉜다.

### 1) e-비즈니스 통합기술

e-비즈니스 통합기술이란 e-비즈니스 인터페이스간, 애플리케이션간, e-Marketplace와 통합과 관련된 기술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e-비즈니스 통합기술로는 EIP (기업정보포털), 인터넷포털, 애플리케이션 통합기술로는 EAI(기업내 애플리케이션 통합)와 Web Service, 그리고 e-Marketplace간 통합기술로는 B2Bi(B2B 인터페이스 및 프로세스 통합)를 들 수 있다.

이 로드맵에서는 최근 통합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는 추세를 감안하여 프로세스별 응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하는 통합기술 계층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데 향후 기술의 전개방향은 Web Service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기술을 통해 애플리케이션간 데이터와 프로세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서비스되는 구조로 발전되며, 요소기술들은 지능화, 통합화, 협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모습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 2) e-비즈니스 응용기술

e-비즈니스 응용기술이란 거래 프로세스 별로 e-비즈니스 정보수집, 거래, 이행, 고객센터, 경영지원/관리와 협업에 관련된 응용기술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e-비즈니스 응용기술은 크게 정보수집 관련 응용기술, 거래 관련 응용기술, 이행 관련 응용기술, 고객센터 관련 응용기술, 경영지원/관리 관련 응용기술과 협업 관련 응용기술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에는 CMS, 전자입찰, e-Procurement, e-Marketplace, e-Logistics, CRM, ERP, SCM, PDM, SEM 등이 포함된다.

e-비즈니스 응용기술의 추세는 기업 내부의 업무 프로세스를 위한 ERP와 외부의 협업과 조달, 판매를 위한 e-Service를 중심으로 데이터와 프로세스가 통합되는 과정이 지속될 것이며, 단위 서비스를 수행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이들을 축으로 표준화, 모듈화되어 적용될 수 있도록 진화될 것으로 보인다.

### 3) e-비즈니스 요소기술

e-비즈니스 요소기술이란 가치사슬에 따라 데이터/지식의 관리/교환/공유,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관리, 지급결제, 메시징, 보안/인증, 지능형 에이전트와 유무선 통합에 관련된 요소기술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e-비즈니스 요소기술을 통해 e-비즈니스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 및 지식의 관리/교환/공유, 데이터의 분석, 프로세스의 관리, 지급결제 관리, 메시징 관리, e-비즈니스에 대한 보안 및 인증과 유무선 e-비즈니스가 가능하게 된다.

e-비즈니스 요소기술은 데이터/지식의 관리/교환/공유 요소기술, 데이터 분석 요소기술, 프로세스 관리 요소기술, 지급결제 요소기술, 메시징 요소기술, 보안/인증 요소기술, 지능형 에이전트 요소기술과 유무선 통합 요소기술을 포함하며 정보 검색, ebXML, 로그처리/분석, 워크플로우, 전자 지급결제, P2P, 인증, 보안, Semantic Web, LBS 등이 그 관련기술에 속한다.

e-비즈니스 요소기술은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보이며 이동 컴퓨팅과 지능적 환경,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화 기술 등을 중심으로 한 유비쿼터스 관

런 기술이 기존 기술영역을 확장시킬 것이며,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 및 보안 관련 기술 등도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 4) IT인프라 기술

IT인프라 기술 계층은 윗단의 e-비즈니스 요소 기술 및 응용기술 계층이 물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동작할 수 있기 위해 기반이 되는 기술 계층에 해당한다.

이 기술 계층에는 멀티미디어 기술, 데이터베이스 관련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검색 서비스 기술, 통신 기술, 인터페이스 기술, 정보보호 기술, 미들웨어 기술, 개발환경(언어, 방법론, 모델링 기술)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 Ⅲ. e-비즈니스 기술 정책 현황과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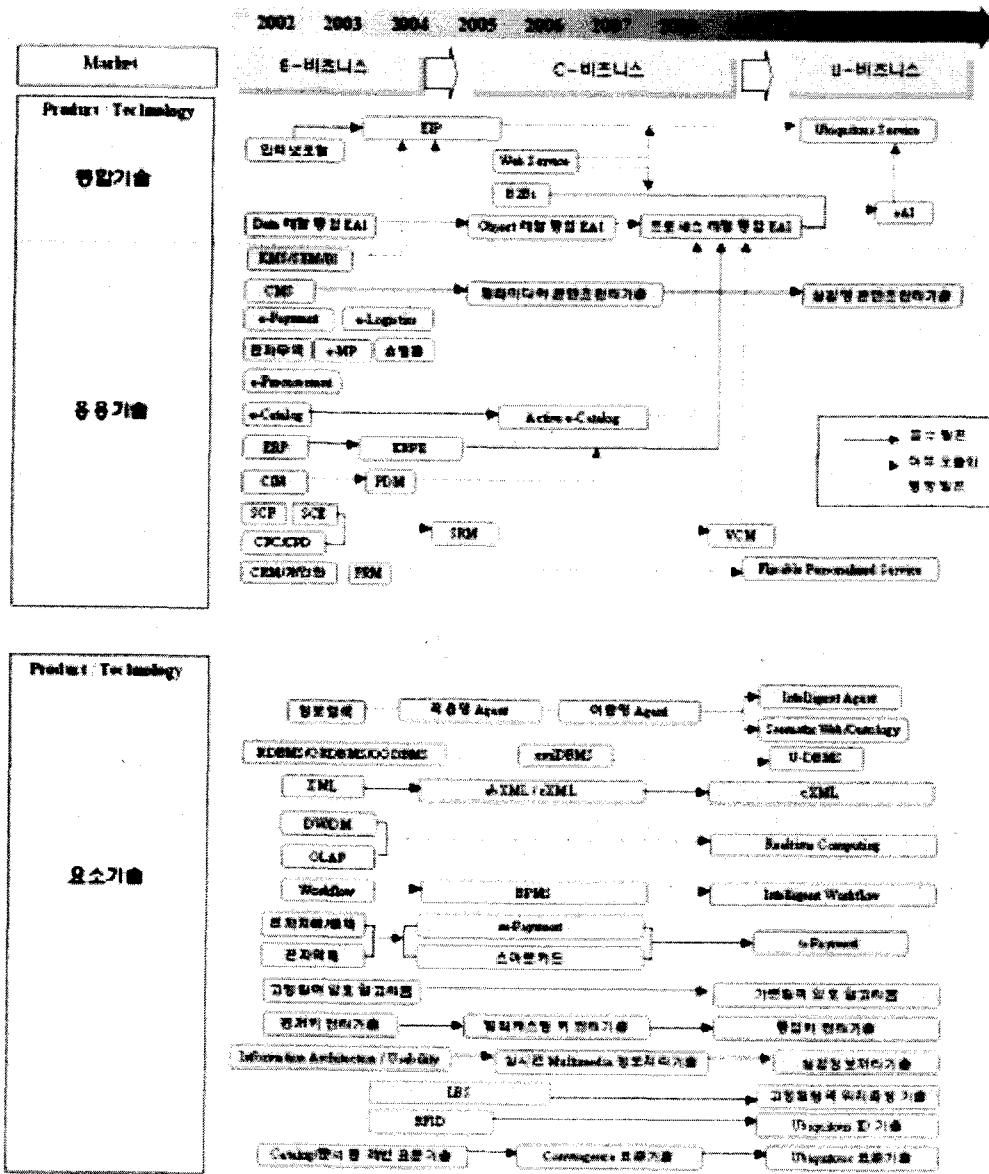
#### 1. 차세대 e-비즈니스의 전개

e-비즈니스의 개념은 경영환경과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라 계속 진보하고 있다. e-비즈니스에 이어 c-비즈니스, u-비즈니스의 개념이 이미 도입되었고 이를 지원하는 기술에 대한 분류체계와 로드맵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

e비즈니스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전통산업의 체질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도구이자 비즈니스 자체이다. 비즈니스와 e비즈니스를 따로 생각하기 힘든 시대가 온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e비즈니스 수준도 기업 내부 정보화에서 기업 간 정보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자체 정보화를 통한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에 머무르지 않고 c-비즈니스 협업을 통한 윈윈게임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의 개발에 따라 u-비즈니스 개념 또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e-비즈니스 기술 로드맵 역시 변화가 요구된다.

아래 그림은 2005 e-비즈니스 백서가 제시하고 있는 기술 로드맵으로 차세대 e-비즈니스의 전개에 따라 e-비즈니스 통합기술, 응용기술, 요소기술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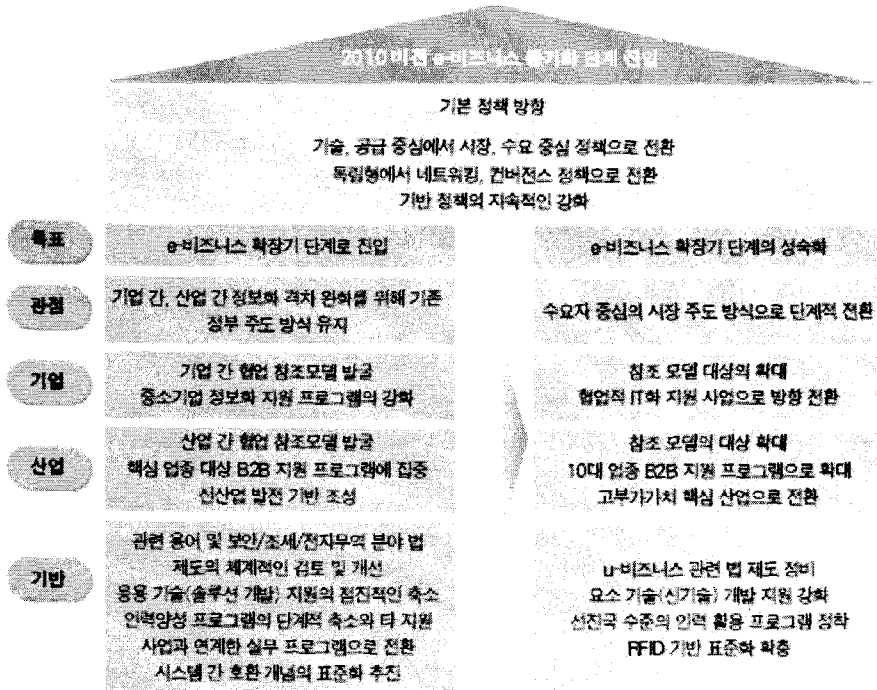
(그림2) 차세대 e-비즈니스의 전개에 따른 기술 로드맵



2010 e-비즈니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의 e-비즈니스 정책 방향 역시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e-비즈니스 '동기화'(synchronization) 단계의 진입을 목표로 기업, 산업, 기반의 관점에서

도 세부적인 정책의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다. 아래 그림은 정부의 e-비즈니스 기본 정책 방향을 설명한 것이다.

〈그림3〉 e-비즈니스 기본 정책 방향



이러한 기본정책방향 및 로드맵에 따라 차세대 e-비즈니스 전개를 위한 핵심 전략기술 분야는 아래 표와 같이 제시되고 있으나 c-비즈니스, u-비즈니스 시대를 대비한 준비로는 아직 분석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표1〉 e-비즈니스 핵심 전략기술 분야

구분	핵심 전략기술 분야
e-비즈니스 통합기술	3 개 분야 (B2Bi, EIP, 웹 서비스)
e-비즈니스 응용기술	6 개 분야 (e-프로큐어먼트, SCE, e-로지스틱스, e-서비스, CPC/CPD, PRM)
e-비즈니스 요소기술	6 개 분야 (XML/ebXML/cXML, LBS, 워크플로우, BPMS, 지능형 에이전트, 시맨틱 웹)

## 2. IT기술의 발전 동향 및 개발 정책

21세기의 정보기술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전세계로 급속하게 전파된 인터넷을 기반으로 정보의 공유와 재사용 및 사용자 중심의 변화가 어우러지면서 다양한 기술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 같은 기술적 측면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웹 중심의 통합 정보 처리에 따라 포털을 통한 통합 서비스의 제공, 둘째, IT 지원 조직의 변화로서 고객 중심 프로세스 변화와 유지보수 인력의 아웃소싱 강화로 조직 구성의 변화, 셋째, 글로벌 스탠더드 중심의 정보화를 추구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기업간 가상 연계로 인한 표준 기술과 솔루션 사용의 중요성 증가, 넷째, 지식중심의 업무 구조 변화에 따라 지식경영을 통한 핵심 능력의 시

스탬화, 다섯째, 객체 지향 중심의 솔루션 변화로서 미래 정보기술 아키텍처 수립 방향으로 시스템 개발과 확장의 효율성 및 재사용성 증대 등이 큰 변화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향은 e-비즈니스 뿐만 아니라 산업사회 전반에 변화를 주도하는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IT 839 전략'을 통해 광대역(Broadband)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통신·방송·정보 융합산업의 발전을 꾀하고, e-비즈니스 기술기반 역시 확대할 계획이다.

IT 산업에서 일고 있는 제2의 성장 모멘텀을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실정에 적합한 IT 산업 발전전략인 IT839 전략을 마련하였으나 이를 e-비즈니스 기술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개발의 성공이 전제되어야 하며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표2〉 IT 839 전략의 구성

8대 신규 서비스	3대 인프라	9대 신성장 엔진
와이브로 서비스	광대역 통합망(BcN)	차세대 이동통신
SMB(위성/지상파) 서비스	u-센서 네트워크(USN)	디지털 TV
홈네트워크	IPv6 도입	홈네트워크
텔레메틱스 서비스		IP SoC
RFID 활용 서비스		차세대 PC
W-CDMA 서비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지상파 디지털 TV		디지털컨텐츠
인터넷 전화(VoIP)		텔레메틱스
		지능형 로봇



e-비즈니스 기술개발 관련 주요 정책의 하나인 전자거래진흥원의 '전자상거래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국내외 e-비즈니스 발전 추세 및 시장 성장성, 기술개발의 파급 효과 등에 대한 종합 평가를 통하여 미래 유망기술 및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전략분야를 도출한 후 집중 지원함으로써 수입 대체효과를 얻고 e-비즈니스 솔루션 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촉진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의 경우 기술개발의 중요성, 개발기간, 사업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크게 일반과제와 전략과제로 구분하여 지원하는데 단기간에 개발이 가능한 기술은 일반과제로 분류하고, 'e-비즈니스 기술개발 로드맵'에서 제시한 15개 핵심 전략기술 분야(표1참조)를 위주로 장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차세대 유망기술은 전략과제로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다.

### 3. e-비즈니스 기술 활용 정책

e-비즈니스는 기업 경쟁력을 높여주어 결국 국가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면에서 'IT강국'으로 불릴 만한 우리 인프라 위에 가장 화려하게 꽃필 수 있는 응용분야이다.

정부가 전자상거래와 e-비즈니스 확산을 위해 노력한 지도 어느덧 영아기를 지나 유아기에 접어들고 있다. 그간 e비즈니스 분야의 주요 화두도 그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고, 최근에는 e-비즈니스를 넘어 u비즈니스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국내 전자거래 시장규모도 크게 성장하여 우리 경제는 이미 e경제에 깊숙하게 진입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기업들에게 e-비즈니스는, 특히 중소기업들에게는 손에 잡히지 않는 추상적 개념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e비즈니스 정책지원 특

히 기술정책의 기본을 다시 세워 우선수요자 중심의 e비즈니스 정책개발 및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중소기업청 등 3개 부처가 e비즈니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 지원하고 있는데 예컨대 중소기업 IT화 사업의 경우 이미 대·중소기업간 및 동 업종기업간의 협업적 정보화를 중점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으며 올해부터는 대기업과 협력업체간의 공급망관리(SCM) 구축 등을 통한 협업적 IT화를 중점 지원해 협업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B2B 시범사업은 이미 구축된 네트워크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유네트워크 확대 및 미국·중국 등 해외시장 개척을 강화하는 한편 트레이서빌리티 등 신기술 접목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e-비즈니스 기술 지원사업의 경우 산자부의 대표 사업은 중소기업에 전자자원관리(ERP)·공급망관리(SCM) 등 솔루션을 공급하는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 그리고 업종별 e비즈니스 표준화를 바탕으로 e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는 기업간(B2B)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꼽힌다. 정통부의 간판 사업은 '렌털(빌려쓰는) IT'로 명명된 애플리케이션임대서비스(ASP)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을 통해 생산정보화, 정보화혁신전문기업(ITMPs), 지역 및 업종별 정보화혁신 클러스터사업 등을 전개 중이다.

c-비즈니스 시대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IT화 사업의 경우 기존 '개별기업의 경쟁력 강화'에서 올해부터는 '공급망 전체의 경쟁력 강화'로 협업의 비중을 대거 높였다. 이를 위해 공급망관리(SCM) 시스템을 활용한 협업적 IT화 지원 비중을 지난해 27%에서 올해 45%까지 확대하고 내년에는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 특히 대기업을 중소기업 IT화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

(중견기업 및 단체 등이 중소기업과 협력을 할 경우 지원을 늘리고 있다. B2B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경우 올해 냉동공조, 도자기·타일, 항공우주 등 3개 업종을 선정, 지난해(6개 업종)에 이어 계속 업종 수를 줄였다. 산자부는 신규 업종 선정을 축소하는 대신 공유네트워크 확대 및 네트워크의 트레이서빌리티 등 신기술 접목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는 '소기업네트워크화사업'을 통해 총 37만개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지원하였으며 2008년까지 4년간 ASP방식을 통해 100만개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지원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수요가 높은 전자자원관리(ERP)·공급망관리(SCM)·고객관계관리(CRM)·그룹웨어 등 주요 SW의 핵심 기능을 선도적으로 모듈화 및 컴포넌트화하는 맞춤형 ASP 솔루션 공급기반에 나서고 있다. 빌려쓰는 정보화 활성화 기반조성의 일환으로 등록저장소(UDDI) 고도화 및 ASP솔루션 인증제 활성화도 추진 중이다.

중기청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 지원을 위한 생산현장의 정보화(e-매뉴팩처링)사업, IT업체가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전담 지원하는 'TIMPs', 지방과 업종별 정보화 거점마련을 위한 '지역·업종별 정보화클러스터 육성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특히 생산현장의 정보화 사업을 유비쿼터스에 접목한다는 방침 하에 올해 u-매뉴팩처링 모델을 개발해 보급에 나설 방침이다.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 IV. e-비즈니스 기술 정책 개선을 위한 제언

e-비즈니스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전통산업의 체질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도구이자 비즈니스 자체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e-비즈니스 수준도 기업 내부 정보화에서 기업 간 정보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제 자체 정보화를 통한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에 머무르지 않고 협업을 통한 윈윈 게임을 꾀하고 있다. 당연히 정부의 e-비즈니스 기술정책 역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e-비즈니스는 디지털경제 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건이다. 단순히 '기존의 비즈니스에 인터넷 인프라를 접목시킨 것'으로 규정짓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기존의 비즈니스 틀을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 때문에 e-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산업계와 학계·연구계가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e비즈니스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도 아낌없는 정책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10 e-비즈니스 신(新)정책 로드맵 기본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e비즈니스 정책이 민간 투자 유도 및 사후 지원 등 수요자(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부의 육성책이 e비즈니스 인프라 구축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시장 창출에는 실패했다는 지적 속에 나온 것이어서 향후 정부 정책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정부가 사업수요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을 발굴해 펼쳐야 하나 현재 이를 위한 수요·공급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민간이 투자에 나설 수 있으며 또한 민간의 사업 결과가 성공적일 경우 예산을 투입하는 사후 지원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기업·협회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 정책이 공급자 중심으로

쏟린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를 수요자와 시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e-비즈니스 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기업정보화를 위해 가장 선호하는 전사자원관리(ERP) 시스템도 공급자인 SW업체들이 직접개발하기보다는 수요자인 제조업체 필요에 의해 표준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SW업체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적용하다 보니 ERP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한 게 사실이며 실수요자인 제조업체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접목시켜야 이러한 기술이 재현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부 지원사업의 경우 철저한 사전관리제도 및 활용도 평가 등을 통해 핵심 기업만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이뤄져야 한다. 기술지원역시 신기술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되, 성숙단계에 접어든 기술은 시장에 맡기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또 e-비즈니스 표준 및 상호운용성의 경우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전자상거래 표준화통합포럼 (ECIF)은 '전자상거래 표준화 로드맵'을 발표해왔다. 최근 발표된 버전의 로드맵은 수요자 중심으로 개발된 것이 특징으로 메시지 전송부터 보안 인증, 전자지불, 전자 문서, 전자카탈로그, 등록저장소, 기업업무 통합 등은 모든 표준에 적용될 수 있도록 수평적으로 배치했으며 로제타넷(전자), 볼레로(무역), HL7 (보건의료), XBRL(재무), IFX(금융) 등 각 산업별 표준은 수직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우리나라 e-비즈니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e-비즈니스 2010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 IT와 전통산업이 융합된 e-비즈니스 발전정책을 위해 부처에 연연하지 않는 범국가

적·대승적 차원에서 e-비즈니스 정책을 마련해 인터넷·초고속통신망 등 세계 수준의 IT인프라를 활용한 전 산업의 디지털경제화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인프라(정보통신영역)와 활용방안(산업영역)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의 부재로 체계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범부처적 e-비즈니스 기술 개발 및 활용의 청사진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비즈니스 기술 개발 및 활용 정책은 이제까지의 정책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산업의 관련 기술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기반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IT지향적인 기반기술의 개발도 중요하나 수요자의 업무 프로세스에 기초한 수요자 중심의 활용기술 개발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까지의 e-비즈니스 기술 정책의 SWOT는 정보통신부의 IT839 정책의 경우 기반기술의 범주를 확대하여 u-비즈니스 시대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e-비즈니스 통합, 응용, 요소 기술 전반을 포함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며 산업자원부의 정책은 c-비즈니스 시대를 염두에 두고 산업체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u-비즈니스 시대에 대한 대비는 부족한 실정이다. IT839 전략은 예산의 집중기회를 가지고 있는 한편 장기적인 전략이고 산업자원부의 정책은 적용기술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 범부처적인 기술 정책 로드맵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e-비즈니스 기술 분류 체계를 고려하여 기반기술에서부터 요소기술, 응용기술, 통합기술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e-비즈니스 기술의 개발 및 활용 정책을 포괄하여야 할 것이며 수요자가 곧바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될 수 있도록 업종별, 기업규모별 표준 업무프로세스의 분석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e-비즈 로드맵 2010』, 산업자원부/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04.
2. 이비즈그룹, 『e-비즈니스 기술 로드맵』, 산업자원부/한국전자거래진흥원 연구보고서, 2003.
3. 전자상거래연구소, 『e-비즈니스 지식분류체계 수립 연구』, 산업자원부/한국전자거래진흥원 연구보고서, 2004.
4. 전자상거래표준화통합포럼, 『전자상거래표준화 로드맵』, 2004.
5.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백서』, 2004.
6. 산업자원부, 『2004 e-비즈니스 백서』, 산업자원부/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4
7. 산업자원부, 『2005 e-비즈니스 백서』, 산업자원부/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5
8. 김준배, “e비즈 정책 수요자 중심 전환을”, 전자신문, 2004.12.13.
9. 주문정, “e비즈니스 재도약을 꿈꾼다 - 수요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 전자신문, 2005.3.30.
10. 주문정, “e비즈니스 재도약을 꿈꾼다 - e비즈니스 인프라 적극 활용”, 전자신문, 2005.5.6.